



六禮 문답

여섯가지 생활 예절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는대로 대답해 드립니다.

비석의 전면글씨는 남녀 어느쪽을 먼저 쓰나

問 묘소에 비석을 세우는데 그 비석의 앞면에 그 묘소에 묻힌 분의 직함과 성함을 써 새기는 문제입니다. 내외분의 비석을 하나로 세울 때 어떤 비석을 보면 남자를 먼저 쓰고 다음 줄에 여자를 썼는데 어떤 비석을 보면 그 묻힌 위치대로 여자를 먼저 써 새겼습니다. 내려쓰는 종서縱書는 오른쪽이 먼저이니 남자를 먼저 쓰는 게 옳다고 하고, 그 묻힌 위치는 여자가 오른쪽이니 여자부터 먼저 써야 한다고 갑론을박을 하여 어떤 게 옳은지 알 수가 없고 주장의 다툼에 끝이 없습니다. 어떤 게 옳은지요? 그제 집안이나 문중에 따라 다르고 혹은 사색당파四色黨派나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인가요? — 一 窮問子

答 묘소에 비석을 세우는데 묻힌 사람의 관직과 본관성명을 큰 글씨로 써 새기는 것을 묘표墓表 또는 표석表石이라고 합니다. 묘표는 여기에 묻힌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표시하는

패말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적에는 봉분 앞의 혼유석魂遊石 뒤에다 바짝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상석床石을 베풀었지요. 이 표석에 쓰는 글씨는 집안 사당의 신주神主에서 연유해서 이를 그대로 옮겨다 새기되 그 글씨를 크게 키운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표의 글씨는 신주의 글씨와 똑같고 또한 똑같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당에 신주를 모실 때 이서위상以西爲上의 원리에 따라 서쪽에 남자의 신주, 동쪽에 여자의 신주를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당 앞에서 참배자가 보면 왼쪽이 건위乾位이고 오른쪽이 곤위坤位가 되며 어떤 경우에도 신주는 내외분을 따로따로 만들어 한 분판粉板에 양위를 써 넣지는 않습니다. 신주야 밤나무토막을 깎아서 만들면 되지만 묘표를 세우려면 옛적에 한 재산이 들어가다 시피했으니 선대의 묘소에 비석을 하나씩 세우기도 어려운데 내외양위에 둘씩 따로 세울 엄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빗돌에 내외양위를 써 새겨넣는데 신주를 모신 순서대로 이서위상을 하면 여자가 오른쪽이니 여자를 먼저 쓰게 되었던 것입니

다. 묘소도 그 체백과 광중壙中은 내외를 합장하든 쌍분으로 하든 이서위상이니 남자가 서쪽으로서 앞에서 보면 왼쪽에 묻히게 되고 여자가 동쪽이니 앞에서 보면 오른쪽이 됩니다. 그런데 신위나 무덤의 위치는 이서위상인데 글씨는 오른쪽부터 먼저 쓰니 이동위상以東位上이라 묘표를 세워 놓으면 여자가 먼저 거칭되므로 천지역순天地逆順의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지天地가 동격이요 남녀가 평등하다 하더라도 남자가 천天으로서 하늘이면 여자가 지地로서 땅인데 이를 뒤바꿔 여자가 하늘이 되고 남자가 땅으로 내려앉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사의 축문 등에서도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먼저 부르고 어머니와 할머니를 그 뒤에 써서 불러 아되는데 묘표에 거꾸로 쓰이니 아무래도 거러끼고 미안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묘안이 생겨난 셈입니다. 아버지를 먼저 쓰고 어머니를 다음 줄에 쓰되, 그렇게 하여 묻힌 순서 이서위상이 엇바뀔 우려가 없도록 어머니의 것에는 ‘부’자를 끝에 붙였습니다. 부는 부장 葬을 했다는 뜻으로 곁에 붙여 장사한 것이니 당연히 시위尸位에서 보면 왼쪽이요 동쪽이고, 배계절拜階節에서 자손이 보면 오른쪽이 되는 것입니다. 부인이 둘이어서 3위를 합렴하고, 건위가 가운데, 전배前配가 동쪽인 왼쪽, 후배가 서쪽인 오른쪽에 묻히는 경우에도 걱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비표에는 먼저 건위를 쓰고 배위는 차례로 전

배부터 쓰는데 끝에 부좌 左이면 동위 東位여서 선배先配, 부우 右이면 서위로서 후배後配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자를 활용해 붙이면서 비표에 남자부터 먼저 쓰게 된 것이 일반화된 지가 오래이고 여자를 먼저 쓴 비표는 오래된 고비古碑에서나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구제舊制를 고집해서 기어코 여자를 먼저 쓰고 부자를 쓰지 않는 사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인聖人도 여세출與世出이라 했습니다. 굳이 이런 일로 다투어, 혼자서 흐르는 큰 물에 맞서 거스를 게 없겠습니다. 이러한 비표는 처음에 조그마했는데 점차 커졌습니다. 이 표석의 뒷면, 즉 비음碑陰에는 장사한 연월일만 새겼는데 점차 거기에도 음기陰記라 하여 글을 길게 지어서 새겨 넣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비석은 커져서 봉분 앞으로부터 배계절의 좌측이나 우측으로 내려서 나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은 비석의 뒷면 뿐 아니라 좌우 양측면까지 가득 새겨 넣게 되니 비문을 비음기碑陰記 또는 묘표음기墓表陰記라고만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점차 묘표나 표석은 사라지고 훨씬 커진 묘갈墓碣이 생겼습니다. 묘갈에다가는 비문만 새기는 게 아니라 이제 명銘도 더하게 되었습니다. 묘비문에 특수한 운문韻文인 명을 더한 것이 묘갈명墓碣銘입니다. 자, 다투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되도록 싸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 弼雲齋

함이 이에 더할 나위가 없었다. 이를 충성으로 임금께 옮기고 송宋의 황실을 빛나게 도와 태평太平을 이루었으며 또한 정력精力을 더하여 통감通鑑의 책을 지으니 만세토록 치도治道の 규범이 되었다.

제목 문정부배文正 背는 문정공이 등을 어루만졌다는 뜻이다. 사마광司馬光是 송나라 섬주陝州 하현夏縣의 속수향澗水鄉 사람으로 자가 군실君實이며 세상에서 속수선생澗水先生이라 칭했다. 송 인종仁宗 보원寶元(1038~1040) 연간에 진사進士를 하여 거듭 관직이 올라가 단명학사端明學士가 되고 지수흥군사知水興軍事가 되었으며 신종神宗 때에는 청묘조역법靑苗助役法이 부당함을 극언하여 왕안석王安石의 미움을 사 판서경어사대사判西京御史臺事로 나갔다. 낙양洛陽으로 돌아와서는 철종哲宗이 즉위하자 재상으로 들어와 백성에게 해로운 신법新法을 모두 개정하였다. 관직에 있으면서 죽었으며 온국공溫國公에 추증되고 문정文正의 시호를 받았다. 자치통감資治通鑑 외에 독락원집獨樂園集 등을 지었다. 특히 그 저서 자치통감은 이것을 축약한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이 있는데 지난날 서당에서 읽던 교재 ‘통감’이 사실은 이 사마광의 자치통감 축약본이다.

234. 장손감부長孫感婦

유빈柳玘이 말하기를 ‘최산남崔山南의 형제와 자손이 번성한 것이 향족鄉族으로서 비길 바 없었다. 산남의 증조모 장손부인長孫夫人이 연치가 높아 이가 없는지라 그 조모 당부인唐夫人이 시어머니를 섬김에 효를 다하여 매일 아침 머리를 빗겨 싸개를 매 비녀를 꽂아 드린 다음 섬돌 아래로 내려가 절하고 다시 당으로 올라가 그 시어머니에게 젖을 먹였다. 장손부인이 알곡의 밥

을 먹지 못한 것이 여러 해가 되도록 강녕하였는데 하루는 병환이 들어 장유長幼를 모두 모이게 하여 선언하기를 새 며느리의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다. 원컨대 새 며느리가 자손을 얻으면 그들이 새 며느리와 같이 효경孝敬한다면 최씨의 가문이 어찌 창대昌大하지 아니 하겠느냐고 하였다’ 하였다.

고로무치姑老無齒 : 시어머니 늙어 이가 없으니
유부왈당有婦曰唐 : 며느리가 있어 당씨인데
즐게이배櫛鏡以拜 : 머리빗기고 비녀 꽂은 다음 절하고
유포우당乳哺于堂 : 당에 올라 젖을 먹였네
수년불립數年不粒 : 여러해 알곡을 못먹어도

상득강강尙得强康 : 오히려 건강을 얻었으니
신명시감神明是感 : 신명이 이에 감응하여
문호의창門戶宜昌 : 문호가 의당 창성하였네

시어머니가 늙어 이가 없으니 며느리가 젖을 먹여 봉양한다는 것은 또한 사람으로서 능히 하기가 어려운 바인데 당부인이 시어머니께 효도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으니 자손이 번성하고 문호가 창성한 것이 어찌 신명이 감응하여 도운 바가 아니겠는가.

제목 장손감부長孫感婦는 장손부인이 그 며느리에 감복했다는 뜻이다. 유빈柳玘은 당唐나라 사람 중영仲 초의 아들이고 당 회종僖宗 문덕文德(888) 연간에 이부시랑吏部侍郎으로서 국사國史

바로 고침

본보 2009년 7월 1일자 제127호 15면 ‘權洪燮씨 영무정詩碑’ 기사 제13단 22행 ‘沫 군 은 ‘沫 군’으로, 25행과 26행 사이에 결락된 원시 제6행 ‘은장설경속정성銀裝雪景俗情醒 : 은빛 설경에는 세속을 씻는데 를 삽입하여 바로잡습니다.

를 찬수纂修하고 뒤에 어사대부御史大夫가 되었으며 소종昭宗이 재상을 삼고자 했으나 관관宦官들이 모함하여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가훈家訓을 지어서 자손을 계칙하였는데 이것이 ‘유씨가훈柳氏家訓’으로 후세에 전하게 되었다.

능동춘추에 10년을 연재해온 천착물
한권의 단행본으로 발간

漢字도 우리글

한국어 어쩌면 좋은가
權光旭

서두를 한번 읽기 시작하면 몰랐던 우리 말글의 병을 자각하며 잠재의식의 회오리에 말려든다. 일독을 마치고 거기에서 벗어나노라면 우리 어문의 괴저와 뇌질환으로부터의 출구가 선명히 드러나 보인다.

신국판 403면·값 1,300원·서점에서 구입
도서출판 해돋이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 우110-044
전화 02) 734-3085·732-9139 / 전송 02) 738-8935
전자우편 haedogee@kornet.net

한자를 퇴출하고 박멸한 자리에 영어휘가 파도처럼 밀려들어오며 거개의 우리말 어휘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면서 어법만 따라하느라 왜곡시켜 한국어는 뇌경색에 걸려 빈사상태이다. 영어를 국어화하기 앞서 한자부터 한국어에, 광의의 한글에 포함시켜야 한다.